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혜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상형성에서 인지양식에 따른
회석효과의 개인차
: 도덕성과 유능성을 중심으로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봉 세 인

인상형성에서 인지양식에 따른
희석효과의 개인차
: 도덕성과 유능성을 중심으로

박 혜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06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봉 세 인

인 준 서

봉세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인상형성에서 가장 주된 요소인 도덕성과 유능성을 평가할 때 각 특질영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제시된 경우에 비해서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될 때 특질영역 평가 점수가 감소하는 희석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희석효과가 개인의 인지양식(분석적 사고 대 종합적 사고)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핵심 정보만 제시된 경우와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된 경우의 도덕성과 유능성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양식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도덕성과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연구자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고,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삼각과제, 귀인과제, 변화과제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설과는 다르게 도덕성과 유능성 시나리오 모두에서 핵심 정보만 제시된 경우와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된 경우 평가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바와 같이, 삼각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한 인지양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핵심정보만 제시된 경우와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 특질영역 평가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 희석효과가 인지양식에 따라 조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삼각과제가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중앙값을 사용해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과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특질영역 모두에서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비핵심 정보 개수가 0개인 조건에 비해 8개인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감소하여 희석효과가 관찰되었다.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유능성 시나리오에서 0개인 조건에 비해 8개인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상승하였다. 나머지 조건 간에서는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종합하면, 인지양식을 기준으로 연구 참가자들을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과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본 결과,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참가자는 비핵심 정보가 많은 조건과 핵심정보만 제시된 조건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반면,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참가자는 비핵심 정보가 더해질수록 특질영역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따라서 희석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지적 편향이 아님을 시사한다.

주요어 : 희석효과,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 인상형성, 도덕성, 유능성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1. 회석효과..... 4
2. 인상형성에서의 도덕성과 유능성..... 7
3. 인지양식: 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 9

III. 연구 문제 및 가설

1. 연구 문제 및 가설..... 14

IV. 연구방법

1. 예비연구..... 15
2. 본 연구
 - (1) 연구 참가자..... 17
 - (2) 측정도구
 - (2-1)도덕성과 유능성 시나리오..... 18
 - (2-2)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 측정 과제
 - 삼각과제(Triad Task)..... 20
 - 귀인과제(Attribution Task)..... 20
 - 변화과제(Change Task)..... 21

(3) 연구 설계 및 절차.....	22
3. 결과.....	23
V. 논의	46

참 고 문 헌

부 록

<예비연구 질문지>

<본 연구 시나리오>

<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 측정 과제>

표 목차

표1. 예비조사를 통해 선택된 핵심정보와 비핵심 정보.....	16
표2. 도덕성 시나리오.....	18
표3. 유능성 시나리오.....	19
표4. 귀인과제 시나리오와 질문 예시.....	20
표5. 변화 과제	21
표6. 비핵심 정보 개수 조건에 따른 특질영역 평가 점수.....	24
표7. 인지양식 과제들 간 상관.....	25
표8.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삼각과제의 조절효과 분석.....	32
표9.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삼각과제의 조절효과 분석.....	33
표10.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귀인과제의 조절효과 분석.....	35
표11.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귀인과제의 조절효과 분석.....	36
표12.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1의 조절효과 분석.....	37
표13.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1의 조절효과 분석.....	38
표14.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2의 조절효과 분석.....	39
표15.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2의 조절효과 분석.....	40
표16.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3의 조절효과 분석.....	41
표17.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3의 조절효과 분석.....	42
표18.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4의 조절효과 분석.....	43
표19.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4의 조절효과 분석.....	44

그림 목차

<그림 1>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31

<그림 2>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3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4월 대한민국 대표 예능으로 꼽히는 ‘무한도전’에 출연 중이던 장동민이 과거에 했던 비도덕적 발언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코미디언으로서 많은 인기를 얻은 그였지만 과거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위에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비도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접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인물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장동민은 도덕성을 갖출 것이 기대되는 정치인이 아니라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코미디언으로서 능력이 있다면 도덕성은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타인을 판단할 때 여러 정보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으나, 판단에 필요한 정보만을 구분하여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

여러 종류의 정보가 제공될 때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 Nisbett(1981)은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접할 때 판단과 관련 없는 정보들이 많아지면 핵심정보에 대한 희석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희석효과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뜻한다(Nisbett, 1981). 예를 들어, 연구 참가자들에게 ‘팀은 매주 방과 후 평균 31시간 공부한다.’와 ‘툼은 매주 방과 후에 평균 31시간 공부한다. 그에게는 남자 형제가 하나, 여자 형제들이 있다. 그는 3달에 한번 조부모님을 방문한다. 그는 한번 소개팅을 한 적이 있고 2달에 한번 당구를 친다.’를 제시하고, 두 학생 중 어떤 학생이 더 높은 평점을 받을지 예상하는 질문을 하면, 팀과 톼의 학습시간이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팀의 평점이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Aronson, 2003, Zukier, 1982). 위 연구에서처럼 판단해야 하는 속성의 핵심정보만 제시되는 경우보다 속성과는 관련이 없는 비핵심 정보가 추가로 주어질 때 속성에 대한 판단 값이 감소하는 것이 희석효과이다.

1981년도에 Nisbett이 발표한 희석효과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몇 차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검증 되었다(Hall, Ariss, & Todorov, 2007; Labella & Koehler, 2004; Tetlock, 1989; Yzerbyt & Leyens, 1995; Zukier, 1982).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서양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희석효과의 개인차(성격의 5요인, 인지양식 등)를 다루었던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희석효과가 한국인들에게서도 관찰되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인지양식에 따라 희석효과를 보이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가 독립적인 사물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한 반면, 고대 중국 철학자들은 우주가 하나의 연속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차이가 현재 동양인과 서양인들의 인지양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 동양인들은 서양인에 비해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맥락에 집중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 사건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에 집중한다(Nisbett, 2004). 이러한 인지적 차이를 인지양식이라고 하며, 인지양식은 종합적 인지(holistic cognition)와 분석적 인지(analytic cognition)로 구분할 수 있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은 주로 서양문화와 동양문화로 구분되기도 한다. 동양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과거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했고, 이 사건이 미래에 다양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종합적 인지양식을 갖는다. 반면 서양문화권의 사람들은 그 사건의 원인은 당사자에게 있고, 외부의 다른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석적 인지양식을 갖는다. 즉, 인지양식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로 동아시아권 사람들이 서양문화권 사람들보다 더 복잡한 사고를 하여 종합적 사고를 하고 서양문화권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설선훈, 최인철, 2009).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를 구분하는 특성은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고, 인과 모형의 복잡성이다(설선훈, 최인철, 2009; Nisett, 2001). 즉,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합적 사고자와 동양문화권 사람들의 특징이고, 세상은 각각의 요소들이 모여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분석적 사고자와 서양문화권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회석효과는 인지양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회석효과는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변화할 수 있고, 주어진 정보를 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연구 참가자에게 책임감을 느끼도록 조건화 한다면 연구 참가자는 책임감으로 인해 정보들을 보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는 회석효과를 증가시킨다(Tetlock, 1989). 그렇다면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비해 회석효과를 더 크게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핵심정보와 비핵심 정보들을 보다 쉽게 구분하고, 비핵심 정보가 판단에 관련된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석효과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복검증 되는지 알아보고, 회석효과가 인상형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덕성과 유능성 차원(이민우, 설선훈, 김학진, 2014; Higgins, Rhole, & Jones, 1977; Willis & Todorov, 2006)에서 모두 관찰되는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혹은 분석적 사고를 적게 할수록) 회석효과를 크게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희석효과

희석효과란 중립적이거나 관계가 없는 정보가 판단을 약화시키거나 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Nisbett, 1981). 이는 반드시 많은 양의 정보가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희석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Nisbett(1981)의 고정관념에 대한 희석효과 연구를 들 수 있다.

고정관념에 관한 핵심정보와 고정관념과 관련 없는 정보들을 함께 제시하면, 사람들은 오로지 고정관념과 관련한 정보만을 접했을 때보다 고정관념을 덜 보인다. 구체적으로, Nisbett(1981)은 연구 1의 연구 참가자들에게 엔지니어링 전공자와 음악전공자, 의대생과 영어전공자들을 소개하고, 각 전공에 관한 고정관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네 인물들이 견딜 수 있는 전기충격의 정도나 그들이 한 달에 몇 편의 영화를 감상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참가자들에게는 조건에 따라 고정관념에 관련된 인물의 전공만을 제시하거나 고정관념과 관련 없는 정보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 결과, 관련 없는 정보도 함께 제시받는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은 고정관념과 관련된 정보만 제시받은 조건의 연구 참가자에 비하여 더 약한 고정관념을 나타냈다. 연구 2에서는 부정적 정보를 가진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희석효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위해 제시되는 인물이 아동학대자일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정보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인물의 아동학대자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평소 사람들이 타인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고정관념이 관련 없는 정보로 인해 그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Nisbett, 1981).

이후 GPA점수와 관련된 희석효과도 연구되었다(Zukier, 1982). 즉, Zukier(1982)는 연구참가자들에게 인물의 정보를 제시하고 그 인물의 GPA 점수를 예측하도록 하였는데, 정보는 GPA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정보만 제시하는 조건과 GPA점수 예측과는 무관한 비핵심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조건으로 나누었다. 더 나아가, Zukier(1982)의 연구에서는 위에 설명한 Nisbett(1981)의 연구와 달리 비핵심 정보의 범위를 조절하였다. 즉, 좁은 범위에서 모은 비핵심 정보(그는 학기 중에 주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가 제시된 경우보다 넓은 범위에서 모은 비핵심 정보(그는 3달에 한 번 조부모님을 방문한다)가 제시된 경우에 더 큰 희석효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하였다. 그 결과 GPA점수를 예측하기 위한 핵심정보만 제시되는 조건에 비해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된 조건에서 GPA점수 예측의 정확도가 감소하였고, 제시된 비핵심 정보의 범위가 넓을수록 정확도가 더 낮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고정관념을 이용한 연구(Nisbett, 1981)와 GPA점수를 예측하는 연구(Zukier, 1982) 모두 판단에 필요하지 않은 비핵심 정보의 양과 범위가 핵심정보의 정보를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희석효과는 인물의 특성을 판단할 때뿐만 아니라 물건, 또는 사건에 관한 정보들을 판단할 때도 나타난다.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이 가지는 특성들 중 단점만을 제시할 때와 단점과 관련 없는 물건의 일반적인 특성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의 구매의도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물건의 구매의도가 증가하는 형태의 희석효과가 관찰된다(Igou, 2005). 예시로, 커피메이커의 단점만을 제시한 경우(‘이 커피메이커는 전용 필터만을 사용할 수 있다’)에 비해 단점과 일반적 특성(‘이 커피메이커는 3개의 버튼이 있다’)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구매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Igou, 2005).

최근에는 형벌의 수준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핵심정보가 비핵심 정보와 함께 제시될 때 회석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Watamura, Wakebe, & Karasawa, 2014). 가상의 범죄 시나리오만을 제시하고 가해자의 복역 기간을 결정하도록 할 때에 비해 범죄 시나리오와 가해자가 최근 겪은 부정적 사건(가해자는 범죄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을 함께 제시하거나 피해자가 최근 겪은 긍정적 사건(피해자 가족들은 최근에 복권에 당첨되었다)을 함께 제시한 경우 가해자의 복역기간을 더 낮게 결정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회석효과가 상황적 특성(책임감)에 따라 그 정도가 변화할 수도 있음을 Tetlock(1989)의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Tetlock(1989)의 연구는 Nisbett(1981)의 연구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핵심정보로는 제시되는 인물이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제시하였고, 비핵심 정보로는 인물의 운동시간, 생활습관 등을 제시하였다. 통제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연구 참가자가 응답한 자료는 철저히 비공개라고 설명하고, 책임감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연구 참가자들의 응답은 녹화될 예정이며, 녹화영상은 연구 이후에 분석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응답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책임감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은 통제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에 비해 더 높은 회석효과를 나타냈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참가자들이 평가한 인물에 대한 인상을 서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연구 참가자의 통합적 복잡성(integrative complexity, 자신이 평가한 인물을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책임감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통제조건의 연구 참가자들 보다 인물에 대해 더 복잡한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책임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정보들을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는 회석효과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etlock, 1989).

선행 연구들에서는 회석효과가 주로 서양문화권에서 검증되었고,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들(성격의 5요인, 인지양식 등)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석효과가 한국인들에게서도 관찰되는지 살펴보고, 특질영역 평가의 회석효과에서 인지양식(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의 조절효과를 관찰하였다(Koo & Choi, 2005).

2. 인상형성에서의 도덕성과 유능성

사람들은 다른 이를 보면 순간적으로 인상을 형성하고, 그 인물과 접촉하고 나면 더 풍부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김현미, 1991). 인상형성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자 타인을 개념화하는 과정으로, 대인관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Asch, 1946). 이러한 인상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상이 도덕성과 유능성 차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었다(Fiske et al, 2002). 이 가운데 도덕성은 신뢰성, 성실성과 같은 특성을 의미하고, 유능성은 지능, 기술과 같은 특성을 의미한다.

1946년 Solomon Asch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상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에 관한 연구를 출판하였다. Asch(1946)의 연구에 제시된 형용사를 활용해 Rosenberg(1968)는 인상형성은 형용사들의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접근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일례로,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게으르다는 부정적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사회적이지 못한 사람이 성실하다는 긍정적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Rosenberg, 1968). 이를 설명하기 위해 Rosenberg(1968)의 연구에서는 Asch(1946)에서 사용되었던 총 64개의 형용사를 제시하고 연구 참가자의 주변 사람들을 생

각하며 동일한 인물이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성들을 분류시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의 다차원적 척도와 차후 분석을 통해 2개의 중요한 특성을 발견하였다(사회성 높음-낮음, 지적능력 높음-낮음). 사회성이 높은 특성들은 따뜻함(warm), 사교적인(sociable), 인기있는(popular), 진실된(sincere)등의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적능력이 높은 특성들은 똑똑한(intelligent), 집요한(persistent), 능숙한(skillful)등이 포함되어 있다(Fiske et al, 2002; Rosenberg, 1968).

Rosenberg(1968)가 발견한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표현하는 특성들을 사용해 Wojciszke(1994)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타인을 판단하게 되었던 명확한 계기를 적으라고 지시한 후 1000개 이상의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상을 평가할 때는 대부분 도덕성(Morality)과 유능성(competence)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Wojciszke, 1998).

더 나아가 타인의 인상을 형성할 때 도덕성과 유능성 정보가 동시에 제시되면 유능성 보다는 도덕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wojciszke, 1989). 연구 참가자들에게 인상형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성들을 모두 적도록 지시한 결과 남 여 모두 도덕성을 표현하는 특성들을 적은 비율이 유능성을 표현하는 특성들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연구1). 위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도덕성과 유능성의 긍정적, 부정적 정보들을 조건별로 제시한 결과 제시된 인물의 인상을 결정할 때에는 도덕성을 표현하는 특성의 긍정성 또는 부정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연구4).

이 후 경험적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상을 평가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집단들의 도덕성과 유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 사회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특정

집단에 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그 집단의 지위(높은집단과 낮은집단)와 경쟁 여부(내집단과 외집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그리고 평가된 내용은 각 집단의 도덕성과 유능성 차원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김혜숙 등, 2003; Fiske et al, 2002). 예를 들어, 지위가 높으면서 외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능하지만 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지위가 낮으면서 내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덜 유능하지만 더욱 도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지위도 높고 내집단이라 판단되어 경쟁적이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유능하면서 도덕성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위가 낮고 외집단에 속해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유능성도 낮고 도덕성도 낮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ske et al, 2002).

우리나라에서도 도덕성과 유능성 차원의 특성을 구분하여 타인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집단을 지위와 권력의 측면으로 구분했을 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는 능력 있지만 냉정하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평가를 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는 다소 무능력하지만 푸근하고 따뜻한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을 관찰할 수 있었다(김혜숙 등, 2003; 조궁호, 1982).

종합하면, 기존 연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도덕성과 유능성은 사람이 타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축이 되는 정보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도덕성과 유능성 차원에서 인물을 평가할 때 희석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3. 인지양식: 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의 구분은 사람들의 인지적 처리 양식에서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다.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가 완전히 구분되는 불연

속적 개념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개인에 따라서, 혹은 문화에 따라서 종합적 사고 성향, 혹은 분석적 사고 성향을 나타낸다. 문화에 따른 차이를 보면 동아시아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전체로부터 분리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는 반면 서양 사람들은 모든 독립된 요소들이 모여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Choi et al., 1999; Nisbett et al., 2001; 설선희, 최인철, 2009).

즉,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요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종합적 사고를 하는 반면,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 각각의 요소는 서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분석적 사고를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일례로, 여러 마리의 물고기와 해초, 개구리, 돌들이 들어있는 어항 그림을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준 후 방금 본 그림에서 보았던 것을 설명해 보라고 지시하고, 어항 속에 있던 물고기를 어항과 같은 배경에 있을 때와 다른 배경에 있을 때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연구참가자들이 얼마나 잘 회상하는지 검사한 결과 제시된 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장 큰 물고기를 보았다고 설명했고, 그 다음 차례로 해초나 개구리에 대해 회상하였다. 반면, 일본인들은 가장 먼저 어항을 회상하였고, 그 안에 물고기와 해초 개구리 등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Masuda & Nisbett, 2001).

또 다른 회상 검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한 배경에서는 일본인과 미국인 모두 비슷한 비율로 물고기에 대한 회상률을 보였지만, 다른 배경에 물고기가 제시된 경우에는 일본인이 미국인에 비해 회상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다(Masuda & Nisbett, 2001).

선행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와 같이 서양인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면서 분석적 사고를 하고 동양인들은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면서 종합적 사고를 한다는 것을 Masuda와 Nisbett(2001)의 연구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지양식(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이 꼭 문화

간의 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일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한의학 전공 학생들과 다른 전공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후자에 비해 전자의 종합적 사고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Koo & Choi, 2005). 우리나라 학부생들을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사성 판단(범주화) 과제와 인과관계 해석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이 두 집단이 보인 반응에서의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 또한 관찰 되었다(이재식, 2012; Choi, 2007). 따라서 인지양식은 문화 내에서도 개인차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Koo & Choi, 2005; Choi, 2007). 이러한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고, Choi 등(2007)은 인지양식의 문화적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Analysis-Holism Scale(AHS)을 개발하였다. AHS는 주의의 위치(locus of attention, 부분 또는 전체), 인과이론(causal theory, 소인이론 또는 상호작용이론), 변화 지각(perception of change, 선형 또는 순환), 모순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contradictions, 형식 논리 또는 변증론)의 네 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며, 각 하위 척도 당 6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나타내도록 한다(설선훈, 최인철, 2009). 이 결과의 평균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고, 1점에 가까울수록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지양식을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다(Na & Nisbett, 2010). 그 중 종합적 사고 양식을 측정할 수 있다고 소개되는 과제들은 Inclusion Task, Change Task, Triad Task, Attribution Task 등이 있다(Na & Nisbett, 2010). 많은 과제들 중 본 연구에서는 Triad Task, Attribution Task, Change Task를 사용할 예정이다.

Choi 등이 개발한 AHS척도는 문항을 살펴보면 ‘일을 처리할 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부분을 이해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등의 기술문들이 있다. AHS척도는 위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인데 연구 참가자들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또는 ‘모든 것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등의 문항들을 읽고 위 문항들에 낮은 점수를 준다면 아직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서 인지양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많은 도구들은 인지양식의 전체를 측정하지 못하고, 과제들이 인지양식의 하위척도인 주의측정, 변증법적 사고, 인과이론 등을 각각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Na & Nisbett,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양식의 하위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3가지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다. 인지양식 측정을 위한 3가지 과제는 Na와 Nisbett(2010)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들 중에서 선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과제들을 큰 범주로 나누었을 때 주의를 측정하는 과제들, 변증법 사고를 측정하는 과제들, 인과 이론을 측정하는 과제들, 그리고 범주화를 측정하는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증법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과제들 중 변화과제를 통해 연구 참가자의 순환적-선형적 사고를 측정하고, 인과 이론을 측정하는 과제들 중 귀인과제를 통해 연구 참가자가 내부귀인을 많이 하는지 외부귀인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고, 범주화를 측정하는 과제인 삼각과제를 통해 연구 참가자가 범주화적 사고를 많이 하는지 관계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첫째, 삼각 과제(Triad Task)는 Chiu(1972)의 연구에서 중국인과 미국인의 인지양식을 비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과제는 제시되는 3개의 단어들 중 가장 낯설고 생각되는 두 개의 단어를 묶는 과제이다. 제시되는 단어들은 관계중심으로 묶을 수도 있고, 범주에 따라 묶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1번 문항에는 판다, 원숭이, 바나나가 제시된다. 범주에 따라 묶으면 판다와 원숭이(모두 동

물)가 연결되고, 관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 지을 수 있다. 본 과제는 중국인과 미국인의 차이를 설명한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Ji & Nisbett, 2004). 그 결과 미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관계 중심적 응답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합적 사고를 하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분석적 사고를 하는 서양문화권 사람들 보다 복잡한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고, 범주화적 사고보다는 관계 중심적 사고를 하고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귀인 과제(Attribution Task)는 Kitayama(2006)의 연구에서 미국인과 일본인의 귀인 판단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인물의 행동과 환경을 설명하고, 그 인물이 한 행동이 개인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내부 귀인)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외부 귀인) 묻는 질문에 일본인들은 외부 귀인을 많이 하고, 미국인들은 내부 귀인을 많이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Kitayama, 2006). 일본인들이 외부 귀인을 많이 하는 결과는 동아시아권의 종합적 사고 성향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요소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종합적 인지양식이 개인의 한 행동도 환경이라는 다른 요소와 관련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 변화 과제(Change Task) 또한 미국인과 중국인의 인지양식을 비교하는 과제로 사용되었다(Ji & Nisbett, 2001). 변화 과제는 제시되는 인물의 현재 상황을 읽고, 이와 반대되는 미래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을 예상하는 과제이다. 연구참가자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응답한다. 중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한 결과 중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확률을 예측했다(Ji & Nisbett, 2001). 즉, 중국인들은 현재의 상황과 반대되는 미래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종합적 인지양식을 반영하여 모든 요소는 연결되어 있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Ⅲ.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인물의 도덕성 및 유능성에 대한 핵심정보만 제시된 경우에 비하여 도덕성 및 유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핵심 정보도 함께 제시되는 경우, 해당 인물의 도덕성과 유능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가?

가설 1-1. 핵심정보만 제시되는 조건에 비하여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되는 조건의 연구 참가자들이 해당 인물의 도덕성과 유능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가설 1-2.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되는 조건들에서 비핵심 정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인물의 도덕성과 유능성은 더욱 낮게 평가될 것이다.

연구문제 2. 개인의 인지양식에 따라 희석효과의 정도, 즉,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될 때 인물의 도덕성과 유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정도가 달라지는가?

가설 2-1.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분석적 사고를 적게 할수록) 인물의 도덕성과 유능성을 판단할 때 희석효과를 더 크게 보일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예비연구

도덕성과 유능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정보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Nisbett(1981)의 연구에서는 제시된 인물이 아동학대자일 확률을 측정하기 위해 핵심정보 2개와 비핵심 정보 0개, 2개, 4개, 8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도덕성과 유능성의 핵심정보와 비핵심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 핵심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 12개와 비핵심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 28개를 사용하여 질문지를 만들었다. 질문지는 도덕성과 유능성을 측정하는 질문지로 구분하였고, 비핵심 정보는 도덕성과 유능성 질문지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는 대학교 재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전체 연구 참가자의 수는 도덕성 평가 37명, 유능성 평가 37명으로 총 74명(모두 여성)이었다. 평균연령은 20.54세($SD = 2.13$)였다. 연구참가자들은 각 정보가 도덕성 또는 유능성을 평가하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0(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100(매우 중요하다)점 사이의 값으로 평정하였다. 평정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한 후 평정치 평균이 가장 높게 나온 2개의 정보를 핵심정보로 포함하였고, 평정치 평균이 가장 낮게 나온 정보 8개를 비핵심 정보로 사용하였다. 도덕성에서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다’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한다’가 각각 평정치 평균 91.05($SD=13.48$)과 85.54($SD=24.71$)으로 선택되었다. 유능성에서는 ‘4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가 평균85.95($SD=13.17$),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나다’가 평균 81.08($SD=16.92$)로 선택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선택된 정보들은 (표1)에

정리 하였다.

표 1. 예비조사를 통해 선택된 핵심정보와 비핵심 정보.

정보유형	정보내용
도덕성 핵심정보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
유능성 핵심정보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나다.
도덕성 비핵심 정보	22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시력이 좌우 0.8이다.
	커피마시기를 즐긴다.
	혈액형이 O형이다.
	키가 170cm이다.
	부모님이 옷가게를 운영하신다.
	신발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가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다.
유능성 비핵심 정보	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2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
	강아지 1마리를 키운다.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다.
	친구들과 종종 컴퓨터 게임을 한다.
	한 달에 3회 정도 술을 마신다.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

2.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제시되는 인물의 도덕성이나 유능성을 평가할 때 주어지는 정보가 도덕성 또는 유능성을 보여주는 핵심정보만 제시될 때와 도덕성, 유능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들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를 비교해서 제시되는 인물의 도덕성과 유능성을 평가한 점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핵심정보만 제시되는 경우와 비핵심 정보가 핵심정보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점수의 변화가 개인차 변수인 인지양식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변화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예비연구에서 선정된 도덕성과 유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정보와, 도덕성 또는 유능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핵심 정보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을 비핵심조건의 개수에 따른 각 조건(0개, 2개, 8개)에 할당하고 도덕성과 유능성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고, 점수변화가 인지양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 참가자들이 제시된 정보들이 실제 핵심정보, 비핵심 정보라고 판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 뒤에 각 정보들이 점수를 평가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 6점 척도(1= 전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6=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로 답하게 하였다.

2-1.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여자 대학생 92명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자 3명의 결과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28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0.09세였다($SD=2.11$). 비 핵심

정보 개수 조건(0개, 2개, 8개) 간에는 각각 30명, 29명, 30명이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 절차를 모두 마친 연구참가자들에게 사례로 현금 2천원을 지급하였다.

2) 측정도구

사전 연구를 통하여 생성된 도덕성과 유능성을 판단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각 연구 참가자는 시나리오에 포함된 비핵심 정보의 개수 조건(0개, 2개, 8개)에 따라 무선할당 되었다.

(1) 도덕성 시나리오

예비연구를 통해 선택한 핵심정보와 비핵심 정보를 사용한 도덕성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가자에게 제시된 도덕성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표2). 연구 참가자는 제시되는 시나리오를 읽고 인물의 도덕성이 0점(전혀 도덕적이지 않다)부터 100점(매우 도덕적이다)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었다.

표2. 도덕성 시나리오

조건	시나리오
0개조건	회사원 A씨는 22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A씨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다.
2개조건	회사원 A씨는 22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A씨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다. A씨는 회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한다. A씨의 혈액형은 O형이다.
8개조건	회사원 A씨는 22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A씨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다. A씨의 시력은 좌우 0.8이다. A씨는 회사에서 커피마시기를 즐긴다. A씨는 회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한다. A씨의 혈액형은 O형이다. A씨의 키는 170cm

	이다. A씨의 부모님은 옷가게를 운영하신다. A씨의 취미는 신발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A는 여가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다.
--	---

(2) 유능성 시나리오

예비연구를 통해 선택한 핵심정보와 비핵심 정보를 사용한 유능성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가자에게 제시된 유능성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표3). 연구 참가자는 제시되는 시나리오를 읽고 인물의 유능성이 0점(전혀 유능하지 않다)부터 100점(매우 유능하다)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었다.

표3. 유능성 시나리오

조건	시나리오
0개조건	회사원 B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나다. B씨는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2개조건	회사원 B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나다. B씨는 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B씨는 2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 B씨는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8개조건	회사원 B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나다. B씨는 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B씨는 2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 B씨는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B씨는 강아지 1마리를 키운다. B씨는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B씨는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자랐다. B씨는 친구들과 종종 컴퓨터 게임을 한다. B씨는 한 달에 3회 정도 술을 마신다. 그리고 B씨는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

(3) 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

인지양식(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과제를 사용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삼각 과제(Triad Task)이다. 삼각 과제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는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단어 3개가 제시되고, 연구 참가자에게 3개의 단어를 보고 가장 가까이 연관된 2가지를 묶도록 하였다. 제시되는 단어들은 범주에 따라 묶을 수도 있고, 관련성에 따라 묶을 수도 있는 단어들이 제시된다. 범주에 따라 묶은 응답은 0점으로, 관련성에 따라 묶은 응답은 1점으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은 갈매기, 하늘, 개가 제시되는데 동물이라는 범주로 묶어서 갈매기와 개를 선택했다면 0점으로, 관련성에 따라 묶어서 갈매기와 하늘을 선택했다면 1점으로 변환하였다. 총 20문항 중 핵심 문항은 8문항으로 삼각과제 점수는 0점에서 8점사이의 값을 가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한다고 해석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귀인 과제(Attribution Task)이다. 귀인 과제는 총 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4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표4). 시나리오에는 어떤 인물의 행동과 그 환경이 설명되어 있다. 시나리오를 읽고 제시되는 시나리오의 인물의 행동이 개인 특성 때문인지, 주변 환경 때문인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 4개의 질문 중 1번과 3번 문항은 내부귀인 정도를 측정하고, 2번과 4번 문항은 외부귀인 정도를 측정한다.

표4. 귀인과제 시나리오와 질문예시

시나리오	김유경은 최근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새롭고 비싼 치료약을 개
------	-----------------------------------

	발한 제약회사의 임원이다. 회사에서 약을 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크게 발병하였다. 이에 대해 유경은 지원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에 많은 양의 약을 기부하기도 결정했다.
질문1	김유경의 특성(예를 들어 그녀의 성격, 태도, 기질)들이 그녀의 행동(도움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에 말라리아 약을 기부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질문2	김유경을 둘러싼 주변 환경(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이 그녀의 행동(도움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에 말라리아 약을 기부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질문3	김유경이 다른 특성을 가졌다면(예를 들어 그녀의 성격, 태도, 기질) 그녀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질문4	김유경의 주변 환경이 달랐다면(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 그녀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변화 과제(Change Task)이다. 변화과제는 Ji와 Nisbett(2001)이 중국인과 미국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개발한 5가지의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변화 과제는 인물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 백분율로 응답하는 과제이다(표5). 과제에 제시되는 인물의 이름은 한국인 이름으로 변환하였다. 시나리오의 인물이 현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고 응답한 연구 참가자는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고, 확률이 낮다고 응답한 연구 참가자는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한다고 해석하였다.

표5. 변화 과제

1. 이수와 해우는 둘 다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들은 2년 동

안 교재 중이다. 이들이 졸업 후 헤어질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2. 두 아이가 유치원에서 싸우고 있다. 이들이 언젠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3. 준영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어느 날 그가 부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4. 동수는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체스 챔피언이었다. 그가 다음경기에서 그의 강력한 상대에게 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나이, 성별, 전공, 학년, 부모의 학력과 월평균 가계 소득을 측정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실험참가를 신청한 연구 참가자들에게 한해 연구실에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연구 참가자가 도착하면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가의 자율성 및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가자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난 뒤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여섯 개의 실험 조건(비핵심 정보 0개, 2개, 8개) X 특질영역 시나리오 순서(도덕성-유능성, 유능성-도덕성) 중 한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도덕성과 유능성을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읽고 제시되는 인물의 도덕성 또는 유능성 점수를 평가하였고, 인지양식 측정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인 나이,

학년, 전공, 부모학력, 가계소득을 작성하였다.

연구 참가자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연구의 목적에 대해 사후설명 하였다.

2.2. 결 과

제시된 시나리오의 정보들을 평가할 때 연구 참가자가 각각의 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를 묻는 고려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도덕성과 유능성 시나리오 모두(각각 $t(61) = 25.18, p < .001, t(61) = 24.66, p < .001$) 각각의 정보들이 핵심정보, 비핵심 정보로 명확히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질영역의 순서효과, 즉 도덕성 시나리오와 유능성 시나리오 중 무엇을 먼저 평정하였는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1) 비핵심 정보 개수에 따른 특질영역 평가 점수의 차이

먼저, 특질영역(도덕성과 유능성)에서 비핵심 정보가 추가되었을 때 핵심정보만 제시되었을 때에 비하여 특질영역에 대한 점수가 감소하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가 도덕성과 유능성 영역에서 모두 비핵심 정보가 없는 조건과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된 조건 간에 평가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되었던 조건들에서는 비핵심 정보의 개수가 증가할 때 평가점수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비핵심 정보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회석효과가 각 특질영역(도덕성과 유능성)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 관찰하기 위해 반복검증을 통하여 특질영역과 비핵심 정보개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조건의 기술통

계 값은 표6과 같다.

표 6. 비핵심 정보 개수 조건에 따른 특질영역 평가 점수

특질유형	정보개수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도덕성점수	0	30	74.10	17.40	3.18
	2	29	74.90	16.66	3.09
	8	30	71.80	22.72	4.15
	합계	89	73.58	18.97	2.01
유능성점수	0	30	81.00	13.16	2.40
	2	29	82.07	10.40	1.93
	8	30	80.90	19.35	3.53
	합계	89	81.31	14.67	1.55

먼저, 비핵심 정보가 없는 조건(정보개수 0개 조건)과 비핵심 정보가 있는 조건(정보개수 2개와 8개 조건)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F(2,86)=0.13$, *n.s.* 다음으로, 비핵심 정보 개수 조건(0개, 2개, 8개)에 따른 특질영역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86)=0.13$, *n.s.*

이는 가설1-1, 1-2와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핵심정보만 제시된 조건과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된 조건 간에 특질영역 평가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희석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비핵심 정보 개수가 많아질수록 특질영역의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2도 검증되지 않았다. 요컨대, 핵심정보만이 제시된 경우에 비해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될 경우 특질영역 평가 점수가 감소하는 희석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핵심 정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희석효과를 더 크게 보여 특질영역 평가 점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1-2 또한 지지되지 않았다.

2) 인지양식 과제 점수

인지양식(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였던 3가지 과제의 원점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각 과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표 7). 먼저 삼각과제 값과 변화과제1, 변화과제2, 변화과제3, 변화과제4, 귀인과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 = .01, n.s, r = .15, n.s, r = .14, n.s, r = .16, n.s, r = .01, n.s$). 변화과제1과 변화과제2, 변화과제3, 변화과제4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 = .09, n.s, r = .00, n.s, r = .08, n.s$). 변화과제1과 귀인과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2, p < .05$). 변화과제2와 변화과제3, 변화과제4, 귀인과제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r = .18, n.s, r = .04, n.s, r = .00, n.s$). 변화과제3과 변화과제4, 귀인과제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r = .20, n.s, r = .04, n.s$). 마지막으로 변화과제4와 귀인과제 상관계수도 유의미하지 않았다($r = -.09, n.s$). 따라서 인지양식 평가를 위한 과제 점수를 통합하지 않고 각 과제별로 분석하였다.

표 7. 인지양식 과제들 간 상관(N=89)

	1	2	3	4	5
1. 삼각과제	-				
2. 변화과제1	0.01	-			
3. 변화과제2	0.15	0.09	-		
4. 변화과제3	0.14	0.00	0.18	-	
5. 변화과제4	0.16	0.08	0.04	0.20	-
6. 귀인과제	0.01	-0.22*	0.00	0.04	-0.09

* $p < .05$

첫째, 삼각과제의 20문항 중 무관 문항(filler item)을 제외한 핵심 문항 8문항(1, 3, 6, 7, 9, 11, 14, 15번)을 분석하였다. 제시되는 3개의 단어들 중 범주로 묶은 응답은 0으로 코딩하고 관련성으로 묶은 응답은 1로 코딩하였다. 코딩한 값을 이용해 각 연구 참가자의 삼각과제 합산점수를 구하여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다($M = 5.08$, $SD = 1.77$).

둘째, 귀인과제는 총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나리오에 내부귀인과 외부귀인 정도를 알 수 있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나리오의 1번과 3번 문항은 내부귀인 정도를 묻는 질문들이고, 2번과 4번 문항은 외부귀인 정도를 묻는 질문들이다. 연구 참가자의 내부귀인 점수와 외부귀인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 1번($M = 6.26$, $SD = 0.57$)과 3번($M = 6.06$, $SD = 0.72$) 문항 값의 평균을 통해 내부귀인 값을 구하고, 2번($M = 5.13$, $SD = 0.96$)과 4번($M = 4.93$, $SD = 1.00$) 문항 값의 평균을 통해 외부귀인 값을 구하였다. 내부귀인 ($M = 6.16$, $SD = .60$), 외부귀인 ($M = 5.03$, $SD = .90$). 각 연구 참가자의 내부귀인 평균값에서 외부귀인 평균값을 빼서 내부귀인 편향 점수를 구성하였다($M = 1.13$, $SD = .99$). 즉, 내부귀인 편향 점수가 클수록 연구 참가자는 내부귀인을 많이 하고, 점수가 작을수록 외부귀인을 많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Nisbett, 2009).

셋째, 변화과제는 총 4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답할 수 있다. 각 지문에는 인물의 현재 상황이 설명되어 있고, 인물이 미래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있다. 순환적 사고를 할수록 확률이 높다고 응답하고, 선형적 사고를 할수록 확률이 낮다고 응답한다. 각 지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번 지문 $M = 52.08$, $SD = 20.74$, 2번 지문 $M = 24.42$, $SD = 20.76$, 3번 지문 $M = 43.65$, $SD = 23.51$, 4번 지문 $M = 38.15$, $SD = 17.18$ 이었다. 4개 지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문 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양식 과제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 것은 Na 와 Nisbett(2010)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인지양식을 측정하는 각각의 과제들이 인지양식의 한 가지 측면만을 측정하고 있고, 각 과제가 측정하고 있는 인지양식의 하위 개념이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4개의 지문을 통합하지 않고 인지양식을 측정할 수 있는 각각의 값으로 고려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3) 비핵심 정보 개수와 특질영역 평가 점수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회석효과의 정도가 인지양식에 조절되는지 여부였다. 즉, 비핵심 정보 개수(0개, 2개, 8개)가 증가할수록 특질영역의 평가 점수가 감소하는 회석효과가 개인차 변수인 인지양식(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비핵심 정보 개수 조건에 따라 특질영역 평가 점수가 변화되는 효과에서 인지양식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따라서 비핵심 정보 개수(0개, 2개, 8개)에 따른 도덕성과 유능성 평가를 인지양식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삼각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 참가자의 인지양식(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이 비핵심 정보 개수(0개, 2개, 8개)에 따라 특질영역 평가 점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8 및 표9와 같다. 도덕성의 경우 비핵심 정보의 개수조건과 삼각과제 평균 점수가 각각 도덕성 평가 점수에 대해 주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beta = -.13, n.s.$, $\beta = .11, n.s.$). 하지만 비핵심 정보 개수

와 삼각과제 점수의 상호작용은 도덕성 점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ta = .47, p < .05$). 유능성 시나리오 또한 비핵심 정보의 개수조건과 삼각과제 점수가 유능성 평가 점수 주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beta = -.07, n.s, \beta = .13, n.s$)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ta = .44, p < .05$). 이는 비핵심 정보의 개수 조건에 따라 도덕성과 유능성 점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인지양식이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삼각과제 중앙값을 중심으로 중앙값보다 낮은 값은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종합적 사고를 적게 하는 사람)으로, 중앙값보다 높은 값은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분석적 사고를 적게 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삼각과제 값은 연속변수이지만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비핵심 정보개수 조건(0, 2, 8개)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구분하였다. 삼각과제는 0점에서 8점 사이 값이며, 중앙값은 5.00점이다. 총 89명 중 0점부터 4점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32명, 6점부터 8점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38, 중앙값 5점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19명이다. 19명은 난수표를 사용하여 상 하위집단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그 결과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종합적 사고를 적게 하는 사람)이 44명,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분석적 사고를 적게 하는 사람)이 45명이었다.

그림1과 그림2는 도덕성 평가점수와 유능성 평가점수 각각에 대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덕성 점수를 평가한 조건에서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비핵심 정보가 더해질수록 도덕성 점수가 낮아져 회석효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조건들을 비교한 결과 비핵심 정보 0개의 조건과 8개의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5$), 나머지 0개 조건과 2개의 조건, 2개의 조건과 8개의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F(1,30) = 1.81, p = .19$, $F(1,30) = 3.69, p = .06$).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핵심 정보의 개수에 따른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1,33) = 2.44, p = .13$, $F(1,33) = 2.04, p = .16$, $F(1,33) = 0.01, n.s$), 오히려 비핵심 정보가 더해질수록 도덕성 평가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비해 회석효과를 더 강하게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2-1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유능성을 평가한 조건에서도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비핵심 정보가 더해질수록 유능성 점수가 낮아져 회석효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조건들을 비교해 본 결과 비핵심 정보 0개 조건과 8개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p < .05$), 나머지 0개 조건과 2개 조건, 2개 조건과 8개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30) = 0.68, n.s$, $F(1,30) = 2.65, p = .11$).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핵심 정보가 더해질수록 유능성 평가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0개 조건과 8개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 < .05$), 나머지 0개 조건과 2개 조건, 2개 조건과 8개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33) = 3.86, p = .06$, $F(1,33) = 0.35, n.s$). 이 또한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에 비해 회석효과를 더 크게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모든 참가자의 도덕성과 유능성 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는 비핵심 정보 개수 조건(0개, 2개, 8개)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회석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연구 참가자를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과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특질영역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회석효과를 나타냈고,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비핵심 정보가 더해질수록 오히려

특질영역 평가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즉,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질영역 평가 점수와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점수가 상쇄효과를 나타내어 전체 참가자 간에는 희석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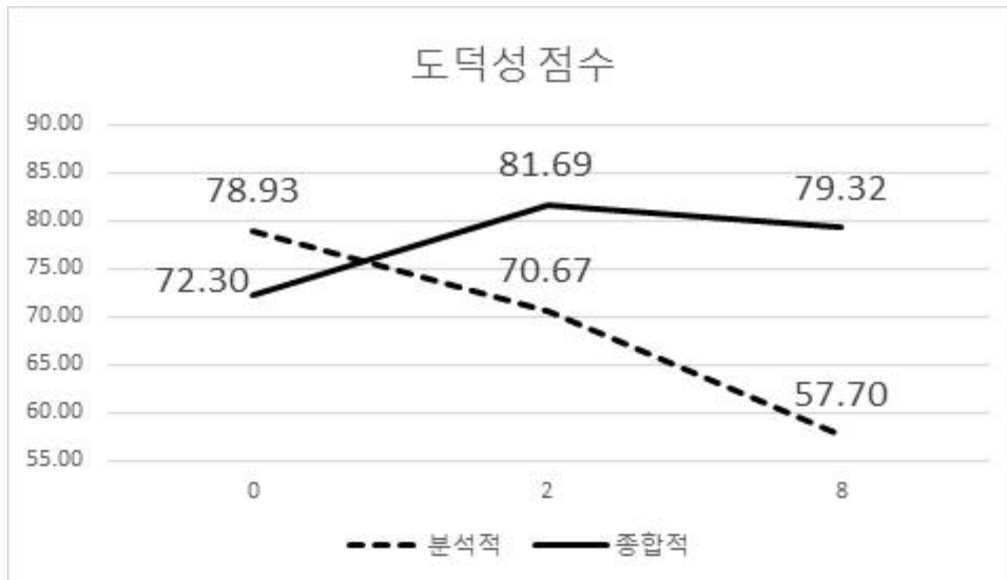


그림 1.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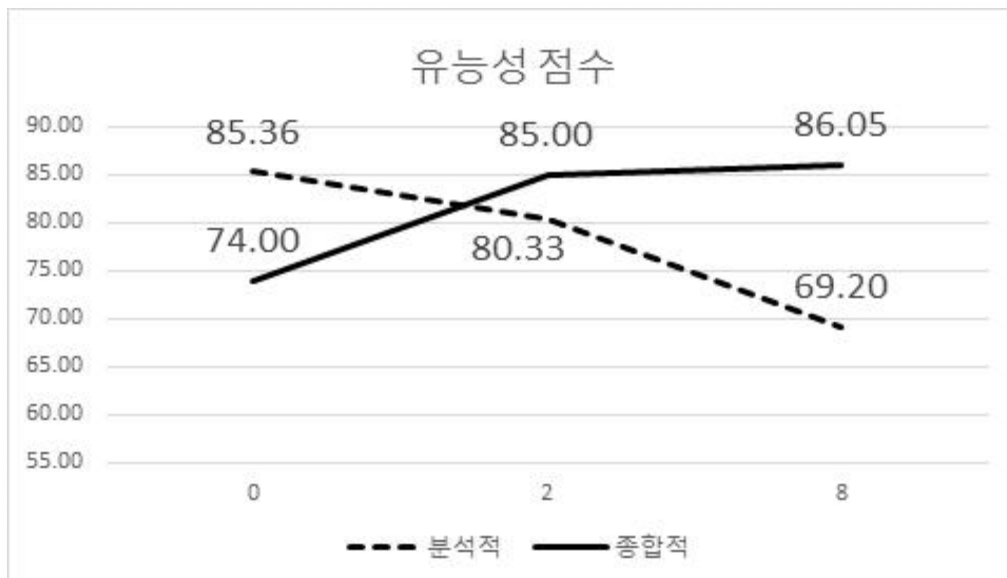


그림 2.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표8.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삼각과제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1.76	1.58	.19	1.11	0.06	0.06	0.73
	전공계열	2.87	3.12	.11	.92			
	학년	-1.79	2.94	-.11	-.61			
	부학력	3.01	2.29	.17	1.31			
	모학력	-.80	2.35	-.04	-.34			
	월소득	-.05	1.02	-.01	-.05			
모형 2	연령	1.73	1.59	.19	1.09	0.08	0.02	0.94
	전공계열	2.74	3.16	.10	.87			
	학년	-1.72	2.97	-.10	-.58			
	부학력	3.48	2.32	.20	1.50			
	모학력	-1.38	2.39	-.08	-.57			
	월소득	-.02	1.02	.00	-.02			
	비핵심 정보개수	-.75	.66	-.13	-1.14			
	삼각과제	1.19	1.26	.11	.95			
모형 3	연령	2.02	1.55	.22	1.30	0.14	0.06	5.08*
	전공계열	3.49	3.09	.13	1.13			
	학년	-2.03	2.89	-.12	-.70			
	부학력	2.74	2.28	.16	1.20			
	모학력	-.20	2.39	-.01	-.08			
	월소득	-.25	1.00	-.03	-.25			
	비핵심 정보개수(A)	-1.03	.65	-.18	-1.58			
	삼각과제(B)	-3.05	2.25	-.29	-1.36			
	상호작용 (A*B)	.88	.39	.48	2.25			

표9.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삼각과제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77	1.24	-.11	-.62	.05	.05	.63
	전공계열	1.10	2.44	.05	.45			
	학년	1.60	2.30	.12	.69			
	부학력	2.93	1.80	.21	1.63			
	모학력	-.43	1.84	-.03	-.23			
	월소득	.00	.80	.00	.00			
모형 2	연령	-.78	1.25	-.11	-.62	.07	.02	.67
	전공계열	1.20	2.48	.06	.48			
	학년	1.50	2.33	.12	.64			
	부학력	3.21	1.83	.23	1.76			
	모학력	-.81	1.88	-.06	-.43			
	월소득	.04	.80	.01	.06			
	비핵심 정보개수	-.31	.52	-.07	-.60			
	삼각과제	1.07	.99	.13	1.08			
모형 3	연령	-.57	1.23	-.08	-.46	.12	.05	4.24*
	전공계열	1.74	2.44	.08	.71			
	학년	1.27	2.29	.10	.56			
	부학력	2.68	1.81	.20	1.48			
	모학력	.04	1.89	.00	.02			
	월소득	-.12	.79	-.02	-.15			
	비핵심 정보개수(A)	-.52	.52	-.12	-1.00			
	삼각과제(B)	-2.00	1.78	-.24	-1.13			
	상호작용 (A*B)	.64	.31	.44	2.06			

둘째, 비핵심 정보의 개수(0개, 2개, 8개) 조건에 따른 도덕성, 유능성 평가 점수를 귀인과제 점수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0, 표11과 같다. 도덕성 점수와 유능성 점수 조건 모두에서 귀인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한 인지양식과 비핵심 정보의 개수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 $\beta = -.30, p = .21$ 과 $\beta = -.36, p = .14$.

셋째, 비핵심 정보의 개수(0개, 2개, 8개) 조건에 따른 도덕성, 유능성 평가 점수를 변화과제 점수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12에서 표19과 같다. 즉, 비핵심 정보의 개수가 특질영역 점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변화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도덕성과 유능성조건에서의 각 변화과제의 조절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화과제1 $\beta = .40, n.s$ 와 $\beta = -.07, n.s$, 변화과제2 $\beta = .00, n.s$ 와 $\beta = .31, p = .12$, 변화과제3 $\beta = .21, p = .35$ 와 $\beta = -.15, n.s$, 변화과제4 $\beta = .36, p = .14$ 와 $\beta = -.04, n.s$.

표10.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귀인과제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B	S.E	β	t	R^2	ΔR^2	F
모형 1	연령	1.76	1.58	.19	1.11	0.06	0.06	0.73
	전공계열	2.87	3.12	.11	.92			
	학년	-1.79	2.94	-.11	-.61			
	부학력	3.01	2.29	.17	1.31			
	모학력	-.80	2.35	-.04	-.34			
	월소득	-.05	1.02	-.01	-.05			
모형 2	연령	1.82	1.61	.20	1.13	0.07	0.02	0.61
	전공계열	2.31	3.18	.09	.73			
	학년	-1.40	2.98	-.08	-.47			
	부학력	2.94	2.41	.17	1.22			
	모학력	-.92	2.38	-.05	-.38			
	월소득	-.02	1.03	.00	-.02			
	비핵심 정보개수	1.18	2.34	.06	.50			
	귀인과제	-.64	.65	-.11	-.98			
모형 3	연령	1.66	1.61	.18	1.03	0.09	0.61	1.62
	전공계열	2.17	3.17	.08	.68			
	학년	-1.69	2.97	-.10	-.57			
	부학력	2.75	2.40	.16	1.14			
	모학력	-1.12	2.38	-.06	-.47			
	월소득	-.03	1.03	.00	-.03			
	비핵심 정보개수(A)	6.12	4.53	.32	1.35			
	귀인과제(B)	-.58	.65	-.10	-.89			
	상호작용 (A*B)	-.87	.68	-.30	-1.27			

표11.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귀인과제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77	1.24	-.11	-.62	0.05	0.05	0.63
	전공계열	1.10	2.44	.05	.45			
	학년	1.60	2.30	.12	.69			
	부학력	2.93	1.80	.21	1.63			
	모학력	-.43	1.84	-.03	-.23			
	월소득	.00	.80	.00	.00			
모형 2	연령	-.67	1.26	-.09	-.53	0.06	0.01	0.35
	전공계열	.77	2.50	.04	.31			
	학년	1.81	2.34	.14	.77			
	부학력	2.65	1.90	.19	1.40			
	모학력	-.38	1.88	-.03	-.20			
	월소득	.07	.81	.01	.08			
	비핵심 정보개수	1.34	1.84	.09	.73			
	귀인과제	-.21	.51	-.05	-.42			
모형 3	연령	-.81	1.26	-.11	-.65	0.09	0.03	2.23
	전공계열	.64	2.48	.03	.26			
	학년	1.54	2.33	.12	.66			
	부학력	2.47	1.88	.18	1.31			
	모학력	-.56	1.86	-.04	-.30			
	월소득	.06	.81	.01	.07			
	비핵심 정보개수(A)	5.88	3.55	.39	1.66			
	귀인과제(B)	-.16	.51	-.04	-.31			
	상호작용 (A*B)	-.80	.53	-.36	-1.49			

표12.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1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1.76	1.58	.19	1.11	0.06	0.06	0.73
	전공계열	2.87	3.12	.11	.92			
	학년	-1.79	2.94	-.11	-.61			
	부학력	3.01	2.29	.17	1.31			
	모학력	-.80	2.35	-.04	-.34			
	월소득	-.05	1.02	-.01	-.05			
모형 2	연령	1.87	1.61	.20	1.17	0.07	0.02	0.73
	전공계열	2.26	3.17	.09	.71			
	학년	-1.46	2.97	-.09	-.49			
	부학력	3.16	2.32	.18	1.36			
	모학력	-1.08	2.37	-.06	-.46			
	월소득	-.08	1.02	-.01	-.08			
	비핵심 정보개수	-.72	.66	-.13	-1.09			
	삼각과제	-.07	.11	-.08	-.70			
모형 3	연령	1.80	1.63	.20	1.11	0.08	0.00	0.16
	전공계열	2.22	3.19	.08	.70			
	학년	-1.46	2.98	-.09	-.49			
	부학력	3.13	2.34	.18	1.34			
	모학력	-1.21	2.41	-.07	-.50			
	월소득	-.08	1.03	-.01	-.08			
	비핵심 정보개수(A)	-.67	.67	-.12	-1.00			
	삼각과제(B)	-.14	.20	-.16	-.71			
	상호작용 (A*B)	.01	.03	.09	.40			

표13.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1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 ²	<i>F</i>
모형 1	연령	-.77	1.24	-.11	-.62	0.05	0.05	0.63
	전공계열	1.10	2.44	.05	.45			
	학년	1.60	2.30	.12	.69			
	부학력	2.93	1.80	.21	1.63			
	모학력	-.43	1.84	-.03	-.23			
	월소득	.00	.80	.00	.00			
모형 2	연령	-.49	1.25	-.07	-.39	0.09	0.04	1.53
	전공계열	.54	2.46	.03	.22			
	학년	1.76	2.30	.14	.77			
	부학력	2.82	1.80	.21	1.57			
	모학력	-.61	1.84	-.04	-.33			
	월소득	.00	.79	.00	.00			
	비핵심 정보개수	-.36	.51	-.08	-.70			
	삼각과제	-.14	.08	-.20	-1.70			
모형 3	연령	-.44	1.26	-.06	-.35	0.09	0.00	0.09
	전공계열	.56	2.48	.03	.23			
	학년	1.77	2.32	.14	.76			
	부학력	2.84	1.81	.21	1.56			
	모학력	-.54	1.87	-.04	-.29			
	월소득	.00	.80	.00	.00			
	비핵심 정보개수(A)	-.38	.52	-.09	-.74			
	변화과제1(B)	-.10	.15	-.14	-.65			
	상호작용 (A*B)	-.01	.03	-.07	-.30			

표14.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2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1.76	1.58	.19	1.11	0.06	0.06	0.73
	전공계열	2.87	3.12	.11	.92			
	학년	-1.79	2.94	-.11	-.61			
	부학력	3.01	2.29	.17	1.31			
	모학력	-.80	2.35	-.04	-.34			
	월소득	-.05	1.02	-.01	-.05			
모형 2	연령	1.81	1.61	.20	1.13	0.07	0.01	0.57
	전공계열	2.25	3.21	.09	.70			
	학년	-1.59	2.98	-.10	-.53			
	부학력	3.20	2.33	.18	1.38			
	모학력	-1.05	2.38	-.06	-.44			
	월소득	-.03	1.03	.00	-.03			
	비핵심 정보개수	-.59	.66	-.11	-.90			
	삼각과제	-.05	.11	-.05	-.42			
모형 3	연령	1.82	1.63	.20	1.12	0.07	0.00	0.00
	전공계열	2.24	3.27	.08	.68			
	학년	-1.59	3.00	-.10	-.53			
	부학력	3.21	2.34	.18	1.37			
	모학력	-1.05	2.39	-.06	-.44			
	월소득	-.03	1.04	.00	-.03			
	비핵심 정보개수(A)	-.59	.67	-.11	-.89			
	변화과제2(B)	-.05	.23	-.05	-.23			
	상호작용 (A*B)	.00	.03	.00	.02			

표15.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2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77	1.24	-.11	-.62	0.05	0.05	0.63
	전공계열	1.10	2.44	.05	.45			
	학년	1.60	2.30	.12	.69			
	부학력	2.93	1.80	.21	1.63			
	모학력	-.43	1.84	-.03	-.23			
	월소득	.00	.80	.00	.00			
모형 2	연령	-.87	1.27	-.12	-.68	0.05	0.00	0.18
	전공계열	1.17	2.53	.06	.46			
	학년	1.78	2.35	.14	.76			
	부학력	3.06	1.83	.22	1.67			
	모학력	-.48	1.87	-.03	-.25			
	월소득	-.07	.81	-.01	-.08			
	비핵심 정보개수	-.25	.52	-.06	-.48			
	삼각과제	.04	.09	.05	.43			
모형 3	연령	-.73	1.27	-.10	-.58	0.08	0.02	1.77
	전공계열	.68	2.55	.03	.27			
	학년	1.68	2.34	.13	.72			
	부학력	3.07	1.82	.22	1.68			
	모학력	-.52	1.86	-.04	-.28			
	월소득	-.12	.81	-.02	-.14			
	비핵심 정보개수(A)	-.33	.52	-.07	-.62			
	변화과제2(B)	-.16	.18	-.22	-.93			
	상호작용 (A*B)	.03	.03	.31	1.33			

표16.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3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1.76	1.58	.19	1.11	0.06	0.06	0.73
	전공계열	2.87	3.12	.11	.92			
	학년	-1.79	2.94	-.11	-.61			
	부학력	3.01	2.29	.17	1.31			
	모학력	-.80	2.35	-.04	-.34			
	월소득	-.05	1.02	-.01	-.05			
모형 2	연령	1.67	1.61	.18	1.04	0.07	0.01	0.51
	전공계열	2.46	3.17	.09	.78			
	학년	-1.38	3.01	-.08	-.46			
	부학력	3.28	2.32	.19	1.41			
	모학력	-.98	2.38	-.05	-.41			
	월소득	-.12	1.03	-.01	-.11			
	비핵심 정보개수	-.68	.68	-.12	-1.01			
	삼각과제	.02	.10	.03	.24			
모형 3	연령	1.50	1.62	.16	.93	0.08	0.01	0.88
	전공계열	2.28	3.17	.09	.72			
	학년	-1.33	3.02	-.08	-.44			
	부학력	3.35	2.33	.19	1.44			
	모학력	-1.13	2.39	-.06	-.47			
	월소득	-.18	1.03	-.02	-.17			
	비핵심 정보개수(A)	-.77	.68	-.14	-1.13			
	변화과제3(B)	-.12	.18	-.15	-.66			
	상호작용 (A*B)	.03	.03	.21	.94			

표17.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3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77	1.24	-.11	-.62	0.05	0.05	0.63
	전공계열	1.10	2.44	.05	.45			
	학년	1.60	2.30	.12	.69			
	부학력	2.93	1.80	.21	1.63			
	모학력	-.43	1.84	-.03	-.23			
	월소득	.00	.80	.00	.00			
모형 2	연령	-.91	1.26	-.13	-.72	0.06	0.01	0.42
	전공계열	.89	2.49	.04	.36			
	학년	2.00	2.36	.15	.85			
	부학력	3.05	1.83	.22	1.67			
	모학력	-.39	1.87	-.03	-.21			
	월소득	-.09	.81	-.01	-.11			
	비핵심 정보개수	-.33	.53	-.07	-.62			
	삼각과제	.06	.08	.10	.81			
모형 3	연령	-.82	1.27	-.11	-.64	0.07	0.01	0.46
	전공계열	.99	2.50	.05	.40			
	학년	1.97	2.37	.15	.83			
	부학력	3.01	1.83	.22	1.64			
	모학력	-.31	1.88	-.02	-.16			
	월소득	-.05	.81	-.01	-.07			
	비핵심 정보개수(A)	-.28	.54	-.06	-.52			
	변화과제3(B)	.14	.14	.23	1.01			
	상호작용 (A*B)	-.02	.02	-.15	-.68			

표18. 비핵심 정보 개수와 도덕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4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1.76	1.58	.19	1.11	0.06	0.06	0.73
	전공계열	2.87	3.12	.11	.92			
	학년	-1.79	2.94	-.11	-.61			
	부학력	3.01	2.29	.17	1.31			
	모학력	-.80	2.35	-.04	-.34			
	월소득	-.05	1.02	-.01	-.05			
모형 2	연령	1.77	1.59	.19	1.12	0.08	0.02	0.92
	전공계열	2.10	3.17	.08	.66			
	학년	-1.46	2.96	-.09	-.49			
	부학력	3.66	2.35	.21	1.56			
	모학력	-1.36	2.39	-.08	-.57			
	월소득	-.06	1.02	-.01	-.06			
	비핵심 정보개수	-.70	.65	-.13	-1.08			
	삼각과제	.12	.13	.11	.93			
모형 3	연령	2.45	1.64	.27	1.50	0.11	0.03	2.27
	전공계열	2.14	3.15	.08	.68			
	학년	-2.03	2.96	-.12	-.69			
	부학력	3.68	2.33	.21	1.58			
	모학력	-2.50	2.49	-.14	-1.00			
	월소득	-.21	1.02	-.02	-.20			
	비핵심 정보개수(A)	-.68	.65	-.12	-1.05			
	변화과제4(B)	-.22	.26	-.19	-.84			
	상호작용 (A*B)	.06	.04	.36	1.51			

표19. 비핵심 정보 개수와 유능성 점수의 관계에서 변화과제4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i>B</i>	<i>S.E</i>	β	<i>t</i>	<i>R</i> ²	ΔR^2	<i>F</i>
모형 1	연령	-.77	1.24	-.11	-.62	0.05	0.05	0.63
	전공계열	1.10	2.44	.05	.45			
	학년	1.60	2.30	.12	.69			
	부학력	2.93	1.80	.21	1.63			
	모학력	-.43	1.84	-.03	-.23			
	월소득	.00	.80	.00	.00			
모형 2	연령	-.83	1.25	-.12	-.66	0.06	0.01	0.51
	전공계열	1.28	2.50	.06	.51			
	학년	1.67	2.33	.13	.72			
	부학력	2.70	1.85	.20	1.46			
	모학력	-.24	1.89	-.02	-.13			
	월소득	-.04	.80	-.01	-.05			
	비핵심 정보개수	-.16	.51	-.04	-.31			
	삼각과제	-.10	.10	-.11	-.92			
모형 3	연령	-.89	1.31	-.12	-.68	0.06	0.00	0.03
	전공계열	1.27	2.52	.06	.51			
	학년	1.72	2.37	.13	.73			
	부학력	2.70	1.87	.20	1.45			
	모학력	-.14	1.99	-.01	-.07			
	월소득	-.03	.81	.00	-.04			
	비핵심 정보개수(A)	-.16	.52	-.04	-.31			
	변화과제4(B)	-.07	.21	-.08	-.32			
	상호작용 (A*B)	-.01	.03	-.04	-.16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핵심정보만 제시된 조건과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된 조건들을 비교하였을 때 도덕성과 유능성 평가 점수가 감소하는 희석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핵심 정보의 개수(0개, 2개, 8개) 조건에 따른 특질영역 점수 변화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3가지 인지양식 측정을 위한 과제들 중 삼각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한 인지양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각과제 중앙값 점수를 기준으로 중앙값 이하는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종합적 사고를 적게 하는 사람), 중앙값 이상은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분석적 사고를 적게 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였을 때,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비핵심 정보 개수 조건에 따른 희석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도덕성과 유능성 두 조건 모두에서 비핵심 정보의 개수가 0개인 조건과 8개인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비핵심 정보가 추가될 때 특질영역 평가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성일 보인 반면,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비핵심 정보가 많이 추가되는 조건에서 특질영역 평가 점수가 낮아져 희석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논 의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 때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괄된 방향으로 정보들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타인의 취미를 그 사람의 유능성과 연결 짓기도 하고 누군가는 취미와 유능성을 철저히 구분지어 받아들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판단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도덕성과 유능성 영역에서 핵심정보만 제시될 때 보다 도덕성과 유능성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비핵심 정보들이 함께 제시될 때 정보의 가치가 희석되어 타인을 평가할 때 인지적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희석효과(Nisbett, 1989)가 한국 사회에서도 관찰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희석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정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효과인지, 그렇지 않다면 개인차 변수인 인지양식(분석적 사고 대 종합적 사고)에 따라 희석효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핵심정보만 제시한 조건과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된 조건 간에 도덕성과 유능성을 판단한 점수가 차이가 나는지 희석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3가지 과제를 통해 인지양식이 희석효과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표들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성과 유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정보만 제시되는 조건과 비핵심 정보가 함께 제시되는 조건 사이에는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도덕성과 유능성을 판단할 때 비핵심 정보 개수 조건(0개, 2개, 8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삼각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한 인지양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삼각과제 중앙값을 기준으로 연구 참가자들을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과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임의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할 수록 비

핵심 정보의 개수가 증가할 때 도덕성과 유능성 평가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유능성 시나리오에서 비핵심 정보 개수 0개 조건과 8개 조건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할 수록 비핵심 정보의 개수 조건들 중 0개 조건과 8개 조건 사이에서 도덕성과 유능성 모두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 도덕성 시나리오에서는 핵심정보만 제시된 경우(0개 조건) 평균이 78.93(SD = 13.75)이고, 비핵심 정보가 많이 더해진 조건(8개 조건)에서는 평균이 57.70(SD = 21.63)였고, 유능성 시나리오에서도 핵심정보만 제시된 경우(0개 조건) 평균이 85.36(SD = 8.43)이고, 비핵심 정보가 많이 더해진 조건(8개 조건)의 평균이 69.20(SD = 26.12)였다. 즉,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 핵심정보만 제시된 조건보다 비핵심 정보가 많이 더해진 조건에서는 인물의 도덕성과 유능성을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비핵심 정보 개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어 희석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희석효과가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변할 수 있고, 주어진 정보를 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희석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Tetlock, 1989).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복잡한 사고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희석효과를 더 크게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하지만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의 도덕성과 유능성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비핵심 정보가 추가될 때 희석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수가 상승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시된 비핵심 정보들 또한 핵심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어, 유능성 시나리오에 제시된 비핵심 정보들 중 ‘2개의 SNS를 운영한다’와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다’ 같은 정보들이 핵심정보인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와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정보와 함께 인지되어 농촌에서 어린 시

절을 보냈지만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 예측으로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로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과 유능성 점수를 평가할 때 제시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의의는 회석효과가 개인차 변수인 인지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데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회석효과 연구는 주로 서양문화권에서 이루어졌고, 회석효과가 문화차나 개인차 변수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석효과가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인상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도덕성과 유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였고, 회석효과의 정도가 인지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로 서양문화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설명되는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결과에서 회석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 도덕성과 유능성 모두에서 회석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회석효과가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관찰되었으나,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핵심 정보가 더해진다고 해도 회석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석효과가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는 인지적 편향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비핵심 정보들에 의해 회석효과라는 인지적 편향을 나타내지만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비핵심 정보들로 인해 핵심정보의 정보가 회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핵심 정보들 또한 핵심정보를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좀 더 복잡한 사고를 한다고 판단되는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핵심정보와 비핵

심 정보의 관계를 복잡하게 고려하여 더 큰 회석효과를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반대로 분석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회석효과가 관찰 되었으나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회석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가능한 해석으로는 연구 참가자에게 인물의 긍정적 도덕성과 유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시된 문항이 인물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유능하지 않은지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유능성의 긍정적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사고를 하는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제시된 비핵심 정보들 또한 도덕성과 유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보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 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론에서 설명했던 Igou(2005)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참가자에게 제시되는 정보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따라 회석효과의 크기가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gou(2005)에서는 제품의 긍정적 정보에 비핵심 정보를 더했을 경우와, 제품의 부정적 정보에 비핵심 정보를 더했을 경우를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부정적 정보에 비핵심 정보가 더해졌을 경우에만 회석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비도덕성 또는 유능하지 못함(무능성)의 정보에 비핵심 정보가 추가될 경우 회석효과를 관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시나리오로 제시되는 특질영역의 정보들을 긍정적 조건과 부정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각 조건에서 회석효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고 본 연구의 결과에 이어서 부정적 조건에서는 종합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회석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3가지 과제를 통합하여 연구 참가자의 인지양식을 모두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모든 과제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고, 3가지 과제들 중 범주화를 측정하는 삼각과제에서만 조절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Na와 Nisbett(2010) 연구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인지양식에 관한 많은 과제들이 인지양식의 각각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결과적으로 과제들 간의 상관

관계가 낮아 하나의 인지양식 점수로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인지양식이 비핵심 정보개수에 따른 희석효과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과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참가자의 개인차가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삼각과제는 인지양식의 하위척도 중 범주화(관계중심적 사고 대 범주화적 사고)영역을 측정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비핵심 정보의 개수에 따른 희석효과 크기를 인지양식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양식의 범주화 영역만이 조절하고 있는 것인지 반복검증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타인의 도덕성 또는 유능성을 평가하는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제시되는 시나리오에는 인물의 특질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한 번에 제시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인의 도덕성 또는 유능성을 평가할 때에는 시간차를 두고 정보들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즉, A가 22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라는 정보를 먼저 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A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한다는 정보를 들었을 경우와 본 연구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했을 경우에 A에 대한 도덕성 평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된다. 시간 할인 이론 중 갈등 이론(conflict theory)에 의하면 부정적 가치와 긍정적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적인 가치가 증가된다. 이는 부정적 가치가 긍정적 가치보다 빠르게 할인이 되기 때문이다(Lewins 1951; Miller 1994; 이정정 2009). 예를 들어 여행에 관한 설렘과 걱정이 공존할 때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의 여행을 생각할 때 설렘의 가치가 증가되고 걱정의 가치가 할인되어 여행에 관한 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A의 도덕성에 관한 정보를 접한 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도덕성을 나타내는 핵심정보의 정보가치가 상승하여 A의 도덕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시간차를 두고 정보를 제시했을 때에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는지 검증해 본다면 보다 현실성을 반영한 연구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 (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함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김현미(1991). 인상형성에 있어서의 부적 우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 박정열, 허태균 (2007). 인상형성에 있어 사회범주 정보(우리-남)와 성격특성 정보(따뜻한-차가운)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4), 55-75.
- 이민우, 설선희, 김학진 (2014). 도덕적 딜레마에서의 판단 경향성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01-226.
- 이정정 (2009). 시간적 간격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소구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이재식 (2012). 문화성향과 분석적-종합적 사고유형의 조합에 따른 전역/국소 처리에서의 차이. *인지과학*, 23(2), 269-293.
- 전우영 (2008).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14.
- 최인철. 설선희 (2009).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과 과급효과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19-38.
- Aronson, E. (1999). *The social animal* (8th ed.). New York: Worth.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258-290.
- Chiu, L-H. (1972).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ognitive styles in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 235-242.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Choi, I., Koo, M., & Choi, J. A.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691-705.
- de Dreu, C. K.W., Yzerbyt, V., & Leyens, J. -P. (1995). Dilution of stereotype-based cooperation in mixed-motive interdepen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575 - 593.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
- Fiske, S. T., Cuddy, A. J.,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2), 77-83.
- Hall, C.C, Ariss, L., Todorov, A. (2007). The illusion of knowledge: when more information reduces accuracy and increases confide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3*(2), 277 - 290.
- Igou, E. R., & Bless, H. (2005). The conversational basis for the dilution effect.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4*, 25 - 35.
- Koo, M., & Choi, I. (2005). Becoming a holistic thinker: Training effect of oriental medicine on reas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9.
- Ji, L. J., Zhang, Z., & Nisbett, R. E. (2001). Culture, change, and prediction.

Psychological Science, 12(6), 450-456.

- Ji, L. J., Zhang, Z., & Nisbett, R. E. (2004). Is it culture or is it language? Examination of language effects in cross-cultural research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57-65.
- LaBella, C., & Derek J. K. (2004), "Dilution and Confirmation of Probability Judgments Based on Nondiagnostic Evidence," *Memory and Cognition*, 32, 1076 - 1089.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92-934.
- Na, J., Nisbett, R. E. (2010).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always reducible to individual differen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14), 6192-6197.
- Nisbett, R. E., & Zukier, H. (1981). The Dilution Effect: Nondiagnostic Information Weakens the Implications of Diagnostic Information. *Cognitive Psychology*, 13, 248-277.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Nisbett, R. E. (2004).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 (최인철 역). 경기도: 김영사.
- Reeder, G. D., & Coovert, M. D. (1979). Negativity effects on Emprression: The Role of Unit formation and Schematic expect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49-62.
- Rosenberg, S., Nelson, C., Vivekananthan, P. S. (1968). A

-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283-294.
- Skowronski, I. J., & Carlston, D. E. (1987). Social judgment and social memory: The role of cue diagnosticity in negativity, positivity and extremity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89-699.
- Tetlock. (1989) Accountability: A Social Magnifier of the Dilu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3), 388-398.
- Van Lange, P. A., & Kuhlman, D. M. (1994). Social value orientations and impressions of partner's honesty and intelligence: A test of the might versus moral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126.
- Wojciszke, B., Dowhyluk, M., Jaworski, M. (1998) Moral competence-related traits: how do they differ?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29(4), 283-294.
- Zukier, H. (1982). The Dilution Effect: The role of the correlation and the dispersion of predictor variables in the use of nondiagnostic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6), 1163-1174.

Abstract

Individual Differences in Dilution Effect as a Function of Analytic vs. Holistic Thinking Style

Sae win Bo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research, the dilution effect is verified when evaluating morality and competence, the most crucial part of impression formation, the characteristic evaluation score decreases when non-diagnostic information to evaluate characteristic was shown as well as diagnostic information compared to just showing the crucial information. Furthermore, I observed if the dilution effect changed according to the cognitive style (analysis VS. Holism).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wanted to first confirm the morality and competence evaluation score of when only diagnostic information is shown and when non-diagnostic information is shown as well and verify that this is controlled by cognitive styles. Scenarios written by the researcher were used to evaluate morality and competence, and triad task, attribution task, change task were used to evaluate cognitive style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unlike the theor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valuation scores of when only diagnostic information was shown and when non-diagnostic information was shown

as well. However, as expected, the cognitive style measured by triad task showed moderation effects. In other word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at when only crucial information is given and when non-diagnostic information is given as well, the dilution effect showing characteristic evaluation score difference is controlled by cognitive styles. Because the triad task is a continuous variable, to verify the interaction effect, analytic thinkers and holistic thinkers were arbitrarily divided by the median. The result showed, in the case of analytic thinkers, dilution effect was observed when the sco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ondition with 8 non-diagnostic information compared to the condition with zero. In the case of holistic thinkers, in the scenarios of competence, the scor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ondition with 8 non-diagnostic information compared to the condition with zero. No significant score difference was verified with the remaining conditions.

Overall, in the result of dividing the participants into analytic thinkers and holistic thinkers based on cognitive styles, people with more analytic think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ituation with only diagnostic information shown and situation with many non-diagnostic information shown. On the other hand, people with more holistic thinking showed tendencies of higher characteristic score when non-diagnostic information was added. Therefore, it suggests that the dilution effect is not a cognitive bias that appears on all people.

Key words: Dilution effect, Analysis-Holism cognitive style, Impression formation, Morality, Competence

부 록

부록1. 예비연구 질문지

부록2. 본 연구 시나리오

부록3. 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 측정 과제

부록3-1. 귀인과제(Attribution Task)

부록3-2. 삼각과제(Triad Task)

부록3-3. 변화과제(Change Task)

부록1. 예비연구 질문지

* 본 연구는 타인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 제시되는 특성과 성향을 읽고, 해당 특성이나 성향이 어떠한 사람이 **도덕적인지**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100(매우 중요하다)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 주십시오.

- _____ A는 파란색을 좋아한다.
- _____ A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
- _____ A는 커피를 좋아한다.
- _____ A는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
- _____ A는 어느 팬클럽에서 회장을 맡고 있다.
- _____ A에게는 남자형제 1명과 여자형제 1명이 있다.
- _____ A는 캠핑을 좋아한다.
- _____ A의 부모님은 옷가게를 운영하신다.
- _____ A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_____ A는 주 1회 운동을 한다.
- _____ A는 심플한 패션 스타일을 좋아한다.
- _____ A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린다.
- _____ A는 2번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
- _____ A는 강아지 1마리를 키운다.
- _____ A는 요리에 관심이 많다.
- _____ A는 바닥에 침을 뱉지 않는다.
- _____ 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_____ A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 _____ A는 친구들과 종종 컴퓨터 게임을 한다.
- _____ A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 _____ A는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
- _____ A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다.
- _____ A는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 _____ A는 여가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다.
- _____ A는 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 _____ A의 키는 170cm이다.
- _____ A는 2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
- _____ A의 시력은 좌 우 0.8이다.
- _____ A는 공공장소에 있는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_____ A는 22살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 _____ A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한다.
- _____ A의 혈액형은 O형이다.
- _____ A는 시험을 치를 때 컨닝을 하지 않는다.
- _____ A는 신발 수집을 좋아한다.
- _____ A는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 _____ A는 한 달에 3회 정도 술을 마신다.
- _____ A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 _____ A는 주기적으로 전시회에 가는 모임의 회원이다.
- _____ A는 정리정돈을 잘 한다.
- _____ A는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 본 연구는 타인의 능력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 제시되는 특성과 성향을 읽고, 해당 특성이나 성향이 어떠한 사람이 **유능한 지**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는지 0(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100(매우 중요하다)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 주십시오.

- _____ A는 파란색을 좋아한다.
- _____ A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 _____ A는 커피를 좋아한다.
- _____ A는 회사에서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 _____ A는 어느 팬클럽에서 회장을 맡고 있다.
- _____ A에게는 남자형제 1명과 여자형제 1명이 있다.
- _____ A는 캠핑을 좋아한다.
- _____ A의 부모님은 옷가게를 운영하신다.
- _____ A는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나다.
- _____ A는 주 1회 운동을 한다.
- _____ A는 심플한 패션 스타일을 좋아 한다.
- _____ A는 4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 _____ A의 2번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
- _____ A는 강아지 1마리를 키운다.
- _____ A는 요리에 관심이 많다.
- _____ A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 _____ A는 5개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 _____ A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 _____ A는 친구들과 종종 컴퓨터 게임을 한다.
- _____ A에게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
- _____ A는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

- _____ A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다.
- _____ A는 영재고등학교 출신이다.
- _____ A는 여가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다.
- _____ A는 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 _____ A의 키는 170cm이다.
- _____ A는 2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
- _____ A의 시력은 좌 우 0.8이다.
- _____ A는 5개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 _____ A는 22살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 _____ A는 직장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 _____ A의 혈액형은 O형이다.
- _____ A의 IQ는 150이다.
- _____ A는 신발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 _____ A는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 _____ A는 한 달에 3회 정도 술을 마신다.
- _____ A는 졸업할 때 5명의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받았다.
- _____ A는 주기적으로 전시회에 가는 모임의 회원이다.
- _____ A는 정리정돈을 잘 한다.
- _____ A는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부록2. 본 연구 시나리오

회사원 A씨는 22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A씨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다. A씨의 시력은 좌 우 0.8이다. A씨는 회사에서 커피마시기를 즐긴다. A씨는 회사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한다. A씨의 혈액형은 O형이다. A씨의 키는 170cm이다. A씨의 부모님은 옷가게를 운영하신다. A씨의 취미는 신발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A는 여가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다.

1. 회사원 A씨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지 0(전혀 도덕적이지 않다)부터 100(매우 도덕적이다)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 주십시오.

회사원 B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나다. B씨는 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한다. B씨는 2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 B씨는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B씨는 강아지 1마리를 키운다. B씨는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B씨는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자랐다. B씨는 친구들과 종종 컴퓨터 게임을 한다. B씨는 한 달에 3회 정도 술을 마신다. 그리고 B씨는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

2. 회사원 B씨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지 0(전혀 유능하지 않다)부터 100(매우 유능하다)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 주십시오.

부록3. 종합적 사고 대 분석적 사고 측정 과제

부록3-1. 귀인 과제(Attribution Task)

* 다음의 시나리오를 주의깊게 읽고 이어서 제시되는 질문들에 응답해 주십시오.

김유경은 최근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새롭고 비싼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회사의 임원이다. 회사에서 약을 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크게 발병하였다. 이에 따라, 유경은 지원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에 많은 양의 치료제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1. 김유경의 특성(예를 들어, 그녀의 성격, 태도, 기질)들이 그녀의 행동(도움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에 말라리아 약을 기부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2. 김유경을 둘러싼 주변 환경(예를 들어, 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이 그녀의 행동(도움이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에 말라리아 약을 기부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3. 김유경이 다른 특성을 가졌더라면(예를 들어, 그녀의 성격, 태도, 기질) 그녀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4. 김유경의 주변 환경이 달랐더라면(예를 들어, 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 그녀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이동진은 대형 병원의 의사로서 대전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과의인 그는 수술을 자주 시행한다. 최근 한 여성이 위궤양을 치료 받기 위해 일상적인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막을 수 있었던 실수가 생겼고, 그녀는 사망하였다. 동진은 실수를 숨겼고, 그 여성의 가족에게 그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전했다.

1. 이동진의 특성(예를 들어 그의 성격, 태도, 기질)들이 그의 행동(환자의 죽음의 원인이 된 피할 수 있었던 실수를 은폐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2. 이동진을 둘러싼 주변 환경(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이 그의 행동(환자의 죽음의 원인이 된 피할 수 있었던 실수를 은폐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3. 이동진이 다른 특성을 가졌다면(예를 들어 그의 성격, 태도, 기질) 그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4. 이동진의 주변 환경이 달랐다면(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 그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유명은은 큰 동해안 도시의 지방 행정 당국의 고위 공무원이고,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시의회가 새로운 다리를 짓기로 결정했을 때, 명은은 특정 건설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녀는 뇌물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 체결을 도운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았다.

1. 유명은의 특성(예를 들어 그녀의 성격, 태도, 기질)들이 그녀의 행동(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2. 유명은을 둘러싼 주변 환경(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이 그녀의 행동(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3. 유명은이 다른 특성을 가졌다면(예를 들어 그녀의 성격, 태도, 기질) 그녀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4. 유명은의 주변 환경이 달랐다면(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 그녀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공태석같은 프로야구 투수들은 공식 시즌 때는 매일 매우 바쁘다. 투수들은 연습과 시합을 하며 매우 열심히 일한다. 그러므로 비시즌에 많은 프로 투수들은 휴가를 가진다. 하지만 태석은 휴가를 가지는 대신,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위하여 무료로 야구캠프를 몇 차례 연다.

1. 공태석의 특성(예를 들어 그의 성격, 태도, 기질)들이 그의 행동(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야구캠프를 여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2. 공태석을 둘러싼 주변 환경(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이 그의 행동(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야구캠프를 여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3. 공태석이 다른 특성을 가졌다면(예를 들어 그의 성격, 태도, 기질) 그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4. 공태석의 주변 환경이 달랐다면(분위기, 사회규범, 또는 맥락적 요인) 그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쪽도 아니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부록 3-2. 삼각 과제(Triad Task)

* 다음에 제시되는 목록들에 함께 제시된 3가지 중에서, 어떤 두 가지가 가장 가깝게 연관되었는지를 동그라미 쳐서 나타내주세요.(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두 단어에 동그라미) *

1. 갈매기	하늘	개
2. 검은색	흰색	파란색
3. 의사	선생님	과제
4. 사과	오렌지	배
5. 신발	부츠	슬리퍼
6. 기차	버스	기차길
7. 컴퓨터 모니터	안테나	텔레비전
8. 병원	은행	영화관(극장)
9. 당근	가지	토끼
10. 구름	바람	비
11. 팬더	바나나	원숭이
12. 셔츠	모자	바지
13. 연	야구	테니스
14. 농부	옥수수	빵
15. 샴푸	머리카락	수염
16. 다리	터널	고속도로

17.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18. 아이

남자

여자

19. 우체부

경찰

유니폼

20. 편지

우표

엽서

부록 3-3. 변화 과제(Change Task)

*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을 읽고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

1. 이수와 해우는 둘 다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들은 2년 동안 교제 중이다. 이들이 졸업 후 헤어질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2. 두 아이가 유치원에서 싸우고 있다. 이들이 언젠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3. 준영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어느 날 그가 부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4. 동수는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체스 챔피언이었다. 그가 다음 경기에서 그의 라이벌에게 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